

수정: 비밀 설정 이미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믿**으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답해주는 걸까?

외관



익명 요청의 지인 지원입니다

단발과 장발이 합쳐진 헤어스타일. 언뜻 해파리를 닮은 듯도 하다. 색은 정반대로 어둡기 그지 없지만. 여름이지만 소매가 긴 세일러복에 속이 비치지 않는 두꺼운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다. 세일러복은 교복이 아니라 단순한 패션.

그리고 만약, 당신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가 가진 **신비**의 빛 또한 볼 수 있으리라.

이름

피티아

피티아라고 부르지 않고 줄여부르거나 다른 호칭으로 부르면 껄끄러워한다.

나이

18세

신장 / 체중

155cm / 45kg

성격

DnD식으로, 질서 선.

이성적인/지혜로운::

그에게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성이었다. 그것도 ‘마술사로서’의 상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상식을 추구했다. 때문에 그는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제법 도덕적이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위치마저 사제이니, 문제가 생기면 그는 늘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는 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면, 이미 그가 말리고 있기 일쑤였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아. 그렇게 말할 뿐인데도, 작은 아이에게서는 어쩐지 종종 카리스마가 느껴지기도 했다. 아직 어리지만 제법 박학다식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지혜로 이어졌다. 다만 아직 어린 만큼 견식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안다는 듯 초연한 얼굴로 웃으며 돌아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로.

해맑은/앞장서는/엉뚱한::

이성적이라고 하면 자칫 차갑고 딱딱한 사람을 상상하기 쉽지만, 그는 매우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다. 아하하, 어차피 제가 어떻게 살든 일어날 일은 똑같을 텐데, 그렇다면 좀 더 재밌게 사는 쪽이 좋지 않겠어요? 자아, 당신도 웃어 보세요. 스마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당신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뛰어가는 이였다. 그는 늘 앞장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길 즐겼다. 누군가가 곤란해보이면 앞장서서 달려가 도와주기도 했다.

그는 의외의 부분에서 엉뚱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한 차원 더 높은...흔히 말하는 사차원. 예를 들면, 사도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은 평범하다. 그러나 그는 이유가 다음과 같았던 것이다. 네에? 사도요? 그런 거, 번거롭기만 하고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사랑하는걸요! 본인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인류에게 몇세기 이를 뿐 특이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호기심이 많은/순진한::

그는 가문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책으로만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는 모르는 것이 많았고, 그에 대한 호기심 또한 많았으며, 그것을 꼭 물어봐야 직성이 풀렸다. 그치만, 모르는 걸 어떻게 참아요? 제가 알아두면 다른 사람한테도 말해줄 수 있으니 좋은 거지요! 그만 좀 물어보라 해도 이리 당당히 말하니 어찌겠는가, 그의 흥미가 가실 때까지 어울려주는 수밖에.

머리가...속된 말로 좀, 꽃발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인류애가 풍족하다고 해야 할까. 이 역시 가문 안에서만 곱게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 때문인지 사람을 잘 믿었다. 예? 거짓말이라고요? 저한테 거짓말을요? 왜요...? 당연히, 본인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버리기도 했다. 그야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은걸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제 말을 믿겠어요?

기타

가문

- 그리스의 마술가계. 가문이 생긴 이래로 쪽 그리스에 안주하고 있다.
- 가문 자체는 오래됐으나 마술사 가계로서의 역사는 그보다 조금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천 년 정도.
- 역사에 비해 외부에 드러난 정보는 많지 않다.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다.
- 다만 가문이 오래된 만큼 '마술각인'이 오래됐다는 사실 자체는 알려져 있다.
- 피티아의 말에 따르면 가문 대대로 신을 믿는다.
- 피티아는 가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피티아는 단지 '피티아'이므로!

마술회로

- 질: ???

- 양: C+
- 마술속성: 수(水)
- 마술특성: 미지(未知)
- 마술각인 위치는 이마

주력 마술

- 마술계통: 점성술
- 특히 두각을 보인 쪽은 신학
- 최근 유미나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마술예장

- 양쪽 귀에 걸린 귀걸이 한 쌍

종교

- 몹시 신실한 종교인. 당연하죠, 저는 사제인걸요!
- 가톨릭은 아니다. 다만 물어보면 누구인지 숨기지는 않는다.
- 타인에게 믿으라고 종용하지는 않지만, 부정당하면 싫어한다.
- 사이비도 아니다…….

좋아하는 것

- 달콤한 것이라면 뭐든!
- 독서. 장르를 가리지 않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서사시.
- 음악
-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
- 뱀을 비롯한 파충류

싫어하는 것

- 쓴 것
- 소음
- 추위. 추우면 자는 버릇이 있다.
- 싸움

특징

- 기억력이 무척이나 좋다.

- 피부가 조금 차가운 편. 눈에 땀 만큼 심하지는 않다.

취미

- 독서
- 시력이 약간 좋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안경을 쓴다.

인간관계

- 가문 안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어 바깥, 특히 학교를 동경한다.
-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과하게 신기해하고 반가워 할 수 있다….

선관

플로렌티노 아리사 : 가문 간의 인연, 유일한 친구?

두 사람의 가문은 마술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쪽. 그러니 피티아와 아리사가 아는 사이인 것도 당연하다. 피티아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비슷한 처지의, 더군다나 가문 밖의 정보를 책이 아닌 말로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 때문에 피티아는 그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호감을 갖고 있다. 친구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의.

친구, 라고 해도 되겠죠~?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선 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요!
친구의 정의(定義)에 부합해요!

비밀설정

외관



무락(@mulyag1)님 커미션입니다



지인 지원입니다

피티아가 가리고 있는 양쪽 뺨과 목, 그리고 팔과 다리 일부에는 뽕과 같은 비늘이 돋아 있다. 가문에 남은 기록에 따르면 ‘피티아’도 그랬다나. 본인은 그다지 신경쓰지 않지만, 다른 이들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는 것은 인지하기 때문에 가리고 다닌다.

자아가 열은/운명론자::

그는 정해진 선 안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그 선은 스스로가 아니라 가문—, 신이 정해둔 것이다. 그의 자유의지는 결국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는 그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야 당연한 것이니까. 자신은 신의 말을 전하는, 신의 도구가 아니던가! 이는 자만도 경시도 아닌, 당연한 사실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그에게 있어서는.

같은 이유로, 그는 신이 정해준-기실 신은 아닐 테다- 운명을 믿는다. 그 믿음은, 가히 맹신이라고 해도 좋다. 운명은 정해져 있고, 미래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평행세계가 있다고 해도 분기는 있으니, 벗어나려 해도 ‘꼭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 마치 오이디푸스가 결국은 제 아비를 죽인 것처럼! 그러니 그는 저항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인다. 오히려, 미래에서 도망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인::

그는 ‘비교적’ 인간적이다. 미래를 아는 사람치고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모르기 때문일까? 그가 예언을 할 때는 늘 무의식이고, 끝나면 기록만 읽으니 말이다. ‘쓰는 것’을 의식해야 하는 불완전한 능력이니 말이다. 덕분에 그는 비교적 인간성이 남아있다. 정말로, 아주 약간이지만. 그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즐거워하며, 알지 못하는 것을 동경하고, 울고 웃는다. 그것이 비록 타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수면에 파문이 이는 듯한 작은 감정변화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과장될 정도로 표현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것만 같아서.

피티아

튀톤의 아내, 뱀이었으나 인간으로 변해 델포이의 신탁을 내리던 ‘최초의 피티아’의 후손. 이외에도 몇몇 피티아를 배출했으나, 그와는 별개로 가문의 사제직 또한 ‘피티아’라고 칭한다. 피티아는 피티아라고 불릴 뿐, 다른 이름이 없다. 피티아 자체가 본명. 이 역시 신비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름에는 담겨진 것이 있으니까.

애석하게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피티아의 혈통은 열어졌다. 그들의 신은 영락했다. 다이달로스 궁전이 땅으로 떨어졌다. 혈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들의 신비 역시, 점차 열어졌다. 그러나, 신대의 신비를 포기할 수 있는 이는 없다.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몹시 간단했다. 시들어가는 신비(바이러스)를 증식시키자. 신비가 열어진다면, 인공적이거나 짙은 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그러나 성공만 한다면 신비가 끊어질 일은 없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혈통을 짙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피에 마술적인 가공을 거치고, 사제직을 물려받은 이들을 ‘피티아’처럼 개조하고, 때로는 근친혼까지 감행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신비는 다시금 짙어졌다. 운명인지 우연인지,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피를 아주 짙게 물려받은, 그들의 선조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초의 피티아는 인간이 되었으나 본질적으로 뱀이었고, 그것은, 태어난 아이도 뱀을 닮았다는 뜻이었다. 원래도 그랬던 것이, 태어난 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공을 받아 더욱 심해졌다.

아폴론

가문 대대로 아폴론을 믿는다. 이유는 아주 안타깝고도 간단한데, ‘기록’에는 피티아의 천리안을 아폴론이 주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에게 전도하거나 돈을 모으지도 않고, 단지 가문 안에서 믿을 뿐. 간혹 가다 믿지 않는 이들이 나오면 호적에서 파기는 한다.

신탁?

신대는 이미 끝났다. 피티아가 전승보균자라고 한들,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목소리를 듣는 당사자, 피티아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불경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피티아만을 안다면 진실을 알 수는 없다.

그가 말하는 신의 신탁이, 아폴론의 신탁이 아닌 *피티아 스스로의 예언*이라는 것을.

아주 쓸모없는 고집이지만, 그 때문에 피티아는 겨울(11~1월)에 예언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겨울에는 신탁을 내리지 않는 법이라고요!

전승보균

최초의 피티아는, 아폴론이 델포이에 오기 전부터 뿔톤과 함께 신탁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피티아’는 처음부터 미래를 보는 **천리안**을 갖고 있었다. 아폴론의 사제가 되어서 예지가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지가 가능한 온순한(물론 이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개체이기에 아폴론이 거둔 것.

그리고, 현재 피티아의 신비는 최초의 ‘피티아’가 가진 천리안을 이어온 것에 가깝다. 이 미래시는 한 시대에 한 명만이 가지고 태어난다. 세대 교체 시기에는 가끔씩 둘이 될 때도 있다.

그럼에도 피티아는 천리안을 통한 예언이 아폴론이 내려준 신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야 아폴론님은 예언의 신이시고, 저희는 아폴론님의 신탁을 내리는 ‘피티아’잖아요! 아아, 신대가 끝난 지도 오래. 그의 발언은 제대로 미친 소리였다……. 그야말로 주입식 교육의 폐해.

스킬

광휘의 신탁	랭크	광휘의 신에게서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스킬.
	사용 불가능	그의 궁전은 추락했지만, 그의 사제는 여전히 신탁을 중용한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미하지만, 서번트로 소환된 아폴론을 만난다면 이 스킬은 사용 가능해진다.
무녀의 카리스마	랭크	군단을 지휘하는 천성의 재능. 단체전투에서, 자군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D	그는 현대의 어린 인간이지만, 어엿한 무녀이며 계시를 내리는 자다. 그것은 전투에도 통용된다. 다만, 랭크는 낮다.
프네우마	랭크	천리안으로 미래를 보기 위해 필요한 황홀경 상태가 된다.
	A+	이 상태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에, 본 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동물회화	랭크	언어가 없는 동물과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다.
	D	단, 피티아의 경우 뱀을 비롯한 파충류에만 해당되며, 상세한 언어를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래보인다’는 감에 가깝다.

보구

미지를 꿰뚫는 뱀의 눈 - 잉트레오스 에피 피티아			
未知を貫く蛇の目 ἔνθεος ἐπὶ Πυθίᾳ			
랭크: Ex	종류: 대인보구	레인지: -	최대포착: 1명

고대의 기도사들은 신에게 땅을 위탁받아 사람을 수호하며, 이를 위해 천리안도 함께 받았다고 한다. —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로, 말했다시피 최초의 피티아는 원래부터 천리안을 타고 났었다.

그는 반대편의 세계를 알아볼 수가 있고, 어느 세계에 있건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통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원래 천리안의 미래시라면 모든 평행세계를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피티아는 다루는 데에 서툴어서 주로 근미래의 확정된 사상을 관측하곤 한다. 현재나 과거는 볼 수 없고, 오롯이 미래만 볼 수 있다. 피티아가 천리안을 통해 미래를 볼 때에는 ‘황홀경’ 상태가 되는데, 이때 무엇을 보든 이후에는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 대신 황홀경 중에 기록을 남겨 자신이 본 미래를 되짚는다.

본래는 상시 발동형이었지만, 물려받은 피티아들은 본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이 아닌 평상시에 쓰는 것은 힘들다. 자신의 것이 아닌 눈을 어떻게 본래 주인만큼 쓰겠는가-물론 마안을 이식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과는 경우를 달리한다. 통상의 천리안 소유자들과는 반대로 ‘안 쓰는 걸 노력해야 하는 쪽’이 아니라 ‘쓰는 걸 노력해야 하는 쪽’. 평소에는 관찰력이 좋고 종종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 정도. 종종 대상의 본질과 미래가 보이기도 하나, 항상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예언’은, 해당 천리안의 소유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게 된다. 당연한 사실을 굳이 덧붙이자면, 피티아는 천리안이 있으나 관위의 자격은 없다.

이계의 신

미래를 알 수 있는 덕분에, 그는 이계의 신의 존재까지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티아는 그를 아폴론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신앙을 더욱 키웠다. 심지어 착각한 덕에 미치지도 않았다! 신령의 좌에 있는 아폴론이 안다면 억울해서 소환될 만한 발상이었다.

점성술

마술계통이 점성술인 것은, 그들이 신비가 쇠락해갈 때 발버둥치며 예언을 대신해 잡은 것이 점성술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놓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술 기반은 ‘델포이’, 즉 지구의 토지다.

그러니, 당연히 달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전승보균자’ 가문이라도 그들은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어엿한 마술사 가계고, 그런 그들이 마술 기반을 포기하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다.

기원

피티아의 기원은 믿음. 즉, 늘 무언가를 믿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선관

플로렌티노 아리사: 운명을 벗어나 미래를 쟁취하려는 저항자, 비슷하지만 반대인 사람.

플로렌티노 아리사— 즉, 카인의 관위지정을 알고 있다. 피티아는 카인의 비밀을, 카인은 피티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셈.

피티아의 가문이 ‘카인’과 관계를 맺은 것은 약 천 년 전, 가문이 처음으로 마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즈음. 그들은 말 그대로 신비에 ‘미쳐’ 있었다. 그러니 그들이 카인과 접촉하게 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리라. 그때 카인은 저가 살아온 오랜 세월 덕에 마술사로서의 적성 또한 갖고 있었고, 이미 관위지정을 개시한 참이었다. 서로 손을 잡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아리사는 종종 피티아에게서 예언을 받아간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세계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다. 피티아는 그를 위한 예언을 하면서도, 내심 그가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신탁을 거부하려다, 결국 최악의 방식으로 신탁에 도달한 이들을 아는 피티아로서는, 더더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으리라. 그에게는 카인의 시도가 단지 아이러니한 저항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피티아가 그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약간 미련한 친구, 정도의 느낌이랄까.

여담으로, 아리사는 피티아가 아폴론이라고 믿는 것이 이계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피티아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 사실 말해줘도 끝까지 아폴론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믿음이 확고한 것도 좋은 일만은 아니다.

소원

아폴론 님!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겠지요! 저희는, 마술 기반을 포기할 수 없어 달에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땅에서— 아니, 물론 델포이는 아폴론 님이 택하신 신성한 영지지만요! 저희가 여기에서 스러지도록 두지는 않으실 테지요? 듣고 계시다면 감히 제가 달에 신전을 세우고 이름을 ‘델포이’로 짓는 것을 허락해주세요! 비록 이 땅을 온전히 옮겨오지는 못하지만, 이름만이라도 옮겨와 저희의 새 터전으로 삼는 것을 용서해주세요!
아아, 제대로 미친 소원이었다…….

트위터 계정

지인 확인